박물관·미술관에서 즐기는 설연휴

한복차려 입고 널뛰기 한번 해볼까

국립광주박물관 24~27일 민속놀이 체험

시립미술관 '옥장 장주원'전·'세계판화'전

설을 맞아 다채로운 전통민속놀이와 문화행사가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가까운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는다면 고향을 찾은 친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만끽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설 연휴인 오는 24~27일까지 박물관 교육관 앞에서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 행사를 연다. 널뛰기, 윷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전통민속놀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또 교육관 대강당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다큐멘터리와 가족애가 담긴 영화를 상영하고 연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박물관에서는 또 이 기간 동안 조선시대 화가와 근·현대의 유명 작가들의 매화 그림을 선보이는 '탐매(探梅), 그림으로 피어난 매화'전도 열린다. 어몽룡, 오달제 등 조선시대의 화가들과 허백련, 권기수, 위진수, 한희원, 허달용, 허달재씨 등 근·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매화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매화 그리기, 목판찍기 등도 곁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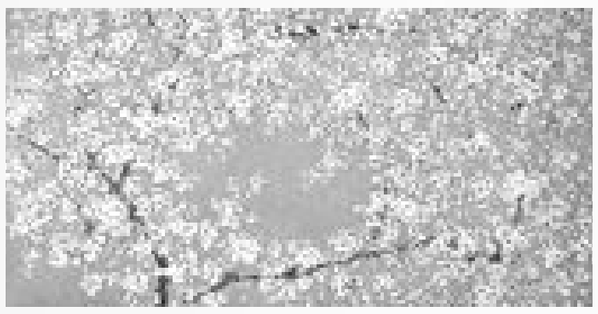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같은 기간 야외마당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그네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설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

소의 해 기축년(己丑年)을 맞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소를 주제로 한 '우보만리(牛步萬里)-소처럼 걷다'전도 볼만하다. 강용면, 김상연, 박수만, 윤남웅, 이이남, 정운학, 허진, 황영성씨 등 광주지역 작가들과 김지희, 노준, 류지선씨 등 서울, 부산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소 그림을 선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은 50여년 동안 옥만을 깎아 온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玉匠) 장주원 선생의 대표작을 모은 '옥장 장주원'전을 갖는다.

그가 20여년에 걸쳐 완성한 '녹옥 사귀 해태 향로'를 비롯해 장인의 예술혼이 섬세하게 새겨진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같은 기간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세계판화'전도 열린다.



허달재 작 '백매'

이들 전시회는 연휴 기간 동안 계속되며 설날 당일인 26일은 미술관과 갤러리 휴무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설 연휴 동안 우리 민족의 해양 문화를 소개하는 '근대 한선과 조선 도구'전을 갖는다. 근대 한선(韓船)과 조선(造船) 도구 등을 통해 사라져 버린 우리 배의 흔적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대의 한선, 한선의 구조, 조선도구, 일제 강점기 근대 선박의 변화, 근대 개항도시와 한선, 근대의 외래선박과 항해도구 등이 전시된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24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까치 까치 설날, 달맞이 가세'를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관현악과 사물놀이 협연 '신모듬', 민요 창무극 '강강술래', 창무악 '해님 달님 사랑 이야기' 등이 주프로그램이다.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도 설날 특별 공연 '새해 희망과 복을 담아'를 준비했다. 26일 오후 5시 국악원 진악당.

새해 덕담을 나누는 '비나리'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이날 공연에서는 가야금 병창 '버벅 타령', 부채춤·진도북춤·삼고무 등 화려한 무용, 판소리 입체창 '토끼 별주부 이야기', 가야금 2중주 '아리랑' 등이다.

이밖에도 22일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과 23일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과 떡국 나누기 등 설날 큰 잔치 행사가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설 연휴 문화 행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

협회는 하나, 회장은 두명?

광주 음악협회 간선제 회장 선출하자

일부회원 직선제로 또다른 회장 뽑아

8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광주음악협회가 두쪽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음악협회는 20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4일 간선제로 선출된 서영화(조선대 교수)회장의 당선을 추인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직선제를 주장해온 일부 회원들은 20일 또 다른 후보였던 강숙자(전남대 교수)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 파행이 빚어졌다.

특히 강 씨측은 법원에 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거를 주관한 7대 집행부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음협이 결국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직선·간선 놓고 대립

이날 총회에서는 간선제로 회장을 뽑았던 7대 집행부와 직선제를 주장하는 일부 회원들의 논쟁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논쟁의 핵심은 '지회장 선거의 경우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28조다. 직선제를 지지하는 회원들은 '출석 임원'은 '출석 인원'의 오타에 불과한데도 직선제 관례를 깨고 '잘못된 정관'을 내세워 투표를 강행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반면 집행부측은 법조계와 상위 기관인 한국음협의 자문을 받아 정관에 따라 치른 이번 선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임 회장측은 집행부를 구성한 데 이어 임원과 대의원 55명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선거관련 정관을 수정했고, 강 씨를 지지하며 직선제를 주장해온 일부 회원 114명은 독자적으로 투표를 실시, 113표를 얻은 강 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학연 등 오래된 파벌 싸움 원인

정관을 둘러싼 논란에서 이번 사태가 촉발하기는 했지만 파벌 싸움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데는 음악계의 이견이 없다. 특히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조선대와 전남대, 초·중등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파워 게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거 때만 되면 회원 수가 급증하고 '세몰이'가 재현되는 게 다반사다. 현재 음협 회원은 1천 40명. 이날 열린 총회에는 300여명이 참여했지만 "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는 데 나도 모르게 회원이 됐다"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강 씨 측이 "특정인들이 협회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간선제를 반대하는 것도 조선대 출신 회장이 지명한 임원들만 투표에 참여할 경우 특정 계파가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 관계자는 "특정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임의적으로 회장을 선출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음악협회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강 씨측은 "잘못된 정관으로 불법 선거를 치른 집행부를 인정할 수가 없어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진도에 남도전통미술관

남종화 본산 운림산방 인근

50억원 투입 전시실 등 갖춰

남종화(南宗畵)의 본산인 진도 운림산방(雲林山房) 인근에 '남도 전통 미술관'이 건립된다.

21일 진도군은 "의신면 사천리 운림산방 인근에 전체면적 2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남도 전통 미술관' 건립 공사를 다음달 시작해 올해 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게 될 이 미술관은 전시실과 글씨·그림 체험실, 경매장, 수장고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 미술관에는 남종화의 대가 소치(小癡) 허련(1808~1893)과 그 화맥을 이어온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남농 허건 선생의 생전 작업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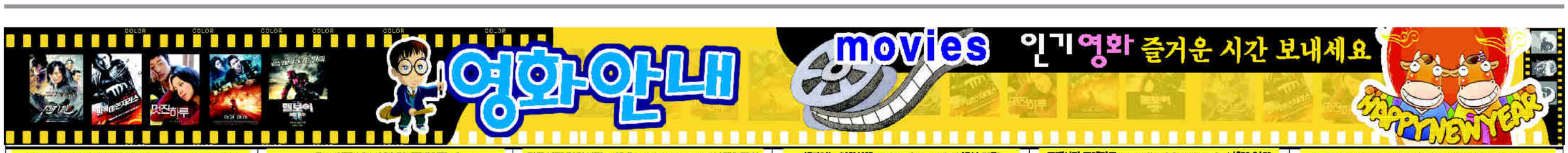
亞 문화전당 해외통신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월5일까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 해외 35개국에서 활동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외통신원' 35명을 모집한다.

해외통신원들은 201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대비해 해외 복합문화예술기관들의 운영 사례,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정보 등을 추진단 웹사이트(www.cct.go.kr)나 블로그에log.naver.com/s6604)에 소개하는 일을 맡게 된다.

올 2월부터 6개월간 활동할 해외통신원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보고' 대회 발제자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정 대상 국가 현지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전문가나 학생, 영어로 의사소통과 기사작성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추진단 웹사이트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3704-3450. /김대성기자 bigkim@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악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적벽대전2 (15세)	최고급관
2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3관	과속 스캔들(12세)/볼라(12세)	
4관	유감스러운 도시(15세)	
5관	유감스러운 도시(15세)	
6관	쌍화점 (18세)	
7관	트랜스포터3 (15세) /배드타임 스토리 (전체)	
8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	
9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2관	벼랑위의 포뇨 (자막) (전체) /마다가스카2 (전체)
3관	체인질링 (18세)
4관	베드타임 스토리 (전체)
5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6관	디파이언스 (15세)
7관	쌍화점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한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상무점·하남점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뒷편)

1관	과속 스캔들 (12세)
2관	벼랑위의포뇨(더빙)(전체)/배드타임 스토리 (전체)/트랜스포터 (15세)
3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2세)
4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2세)
5관	볼트(더빙)(전체)/체인질링 (18세)
6관	마다가스카2(더빙)(전체) /작전명 발키리 (12세)
7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8관	쌍화점 (18세)
9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10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1588-7941 상단원인결 방법 →(1번 or 2번)→이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2관	쌍화점 (18세)
3관	트랜스포터(15세)/적벽대전2(15세)
4관	과속 스캔들 (12세)
5관	마가다스카2(자막)(전체)/체인질링(15세)
6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7관	적벽대전2 (15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벼랑위의 포뇨(더빙)(전체) /배드타임 스토리 (전체)
2관	적벽대전2 (15세)
3관	과속 스캔들 (12세)
4관	마가다스카2(자막)(전체)/트랜스포터(15세)
5관	적벽대전2 (15세)
6관	쌍화점 (18세)
7관	디파이언스(15세)/작전명 발키리(12세)
8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9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10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사람은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i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쌍화점 (18세)
2관	쌍화점 (18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전체)
3관	과속 스캔들 (12세)
4관	트랜스포터 (15세)
5관	마다가스카2 (전체)
6관	디파이언스 (15세)/ 지구가 멈추는날 (12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